

6/14/15

설교 제목: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산으로 달려 가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창세기 19:12-22

(창 19: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절관주** 수 6:22, 창 7:1, 벰후 2:9

(창 19: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 19: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 19: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창 19: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였더라

(창 19: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 19: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창 19: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창 19: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창 19: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 19: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수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래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꼬리를 물고 터지는 대형 사건들로 인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나와 내심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저러다가 임기나 마칠 수 있을까 우려반 안타까움 반입니다.

이런 와중에 '메르스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일부 목회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우리나라와 이슬람과의 할랄 사업권 체결 때문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6월 9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광장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Queer) 축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주장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SNS 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퀴어 퍼레이드를 취소하자고? 그게 걱정이 되면 일단 각 교회 주일 예배부터 취소하자" "동성애 파티 하나 막으려고 애꿎은 백성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신이라는 양반이 할 짓이냐?" 등등의 글을 올리면서 가뜰이나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를 진정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럴 때는 좌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악한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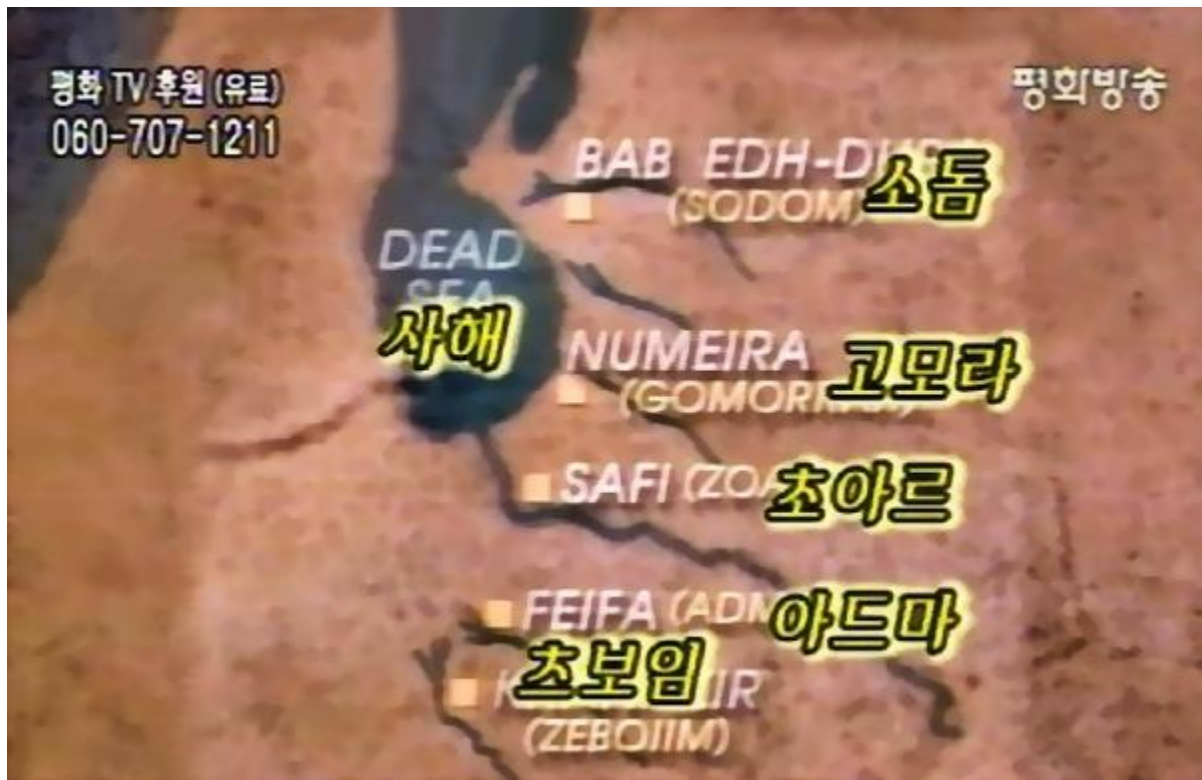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같은 경우를 찾아 거울 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당시 살기 좋고 풍요로와 마치 천국과도 같았던 두 성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해 남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등 5 도시가 번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에 숙부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가라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조카 롯을 챙겨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가뭄으로 인해 애굽으로 잠시 피했던 적이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여 각자가 소유한 가축이 늘어나자 가족 간에 서로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서로 분가해서 살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각자 살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살 곳을 택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아무런 배려없이 요단 쪽을 선택합니다.

롯이 선택한 그 요단 땅은 물이 넉넉하여 기름지고 비옥했으며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반면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아브라함은 롯의 철없는 선택에 나머지 척박한 땅에 남겨지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그는 조카 롯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척박한 땅 헤브론에 머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방문객,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대접을 받은 후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홀로 남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천사들과 함께 여기에 온 이유를 알려 주시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천사를 통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18:20) 무거우니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9: 4-5)

한글 킹제임스 성경 :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눕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개역 개정 성경: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자의 모습(**the men**)으로 소돔을 찾아와 롯에 집에 유숙하게 된 두 천사들에게 소돔의 남자들(**the men of Sodom**)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개역성경은 '소돔의 남자들'을 '소돔의 백성들'로 바꾸어 동성 연애를 가리웠고, '알고자 함이라 (may know)'를 '상관하리라(may have relations)'로 바꾸어 성관계의 의미를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동성 연애자를 가리켜 '**소돔 사람(sodomite)**' 이라 불렀으며 동성 연애를 '**소돔의 죄**'로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동성 연애를 가리켜 크고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동성 연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경은 동성 연애를 가르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딤후전 1: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딤후전 1: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유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2. 성경은 동성애자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롬 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동성 연애를 분명히 수치스러운 욕정 때문에 순리를 거역하고 벗어난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수치스러운 욕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역 성경은 '수치스러운 욕정' 을 '부끄러운 욕심'으로 바꾸어 놓았고,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이라'를 '본성을 거역하는 것'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바꾸어 역리로  
 쓰며'로 바꾸어 놓아 동성애자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 그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4 년 미 정신 의학회에서는 동성연애가 후천적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제 악한 이 세상은 동성 연애를 동성 연애자의 인권의 문제로 다루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와중에 동성 연애자들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성경은 동성 연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4.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동성 연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롬 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롬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5. 동성 연애자의 최후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동성 연애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후 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벧후 2:7)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벧후 2:8)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벧후 2: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벧후 2:10)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란 우리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이 백성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지신 것 같이 심판 날까지 경건한 자를 지키시고 시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롯???

아브라함을 보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롯이 의인이라니?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창 19: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소돔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 주려고 했던 롯이 의인이라구요?

조카인 자신을 친자식 같이 여기면서 길러 주셨던 숙부에게 척박한 땅을 남겨주고 자신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차지한 그가 의인이라구요?

그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예정 소식을 듣고도 지체했고 먼 산으로 피하라는  
 천사들의 말에 먼 산까지는 못가겠다 가까운 소알 성으로 가겠다고 떼를 써 겨우 허락을 받은  
 자입니다.

겨우 두 딸과 함께 피신한 소알 성에서 술에 취해 두 딸들과 근친 상간을 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의인이면 나도 의인이겠다 생각이 드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롬 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 어미의 배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택함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함을 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돔 백성과 같은 성품, 지극히 사악하며 온갖 악으로 가득찬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롯과 같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받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들어 올 것을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곡한 청함을 받고도 소홀히 여겨 건짐 받지 못한 롯의 아내와 사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와 청함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롯의 사위들 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가 세상 것이 생각나 뒤돌아 보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빠지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르긴 하되 롯과 같이 지체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곧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